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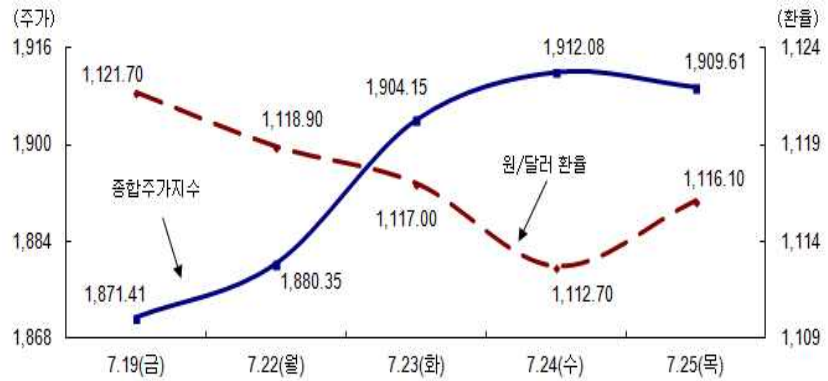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수출산업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7.19~7.25)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수출산업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9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히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작성 : 조 규 림 선임연구원 (2072-6240, jogyurim@hri.co.kr)

Executive Summary

□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수출산업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확대

한국 경제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지난 10여년간 크게 증가했다. 대중 수출의 증가는 그 동안 중국 고성장에 따른 혜택으로 작용했으나, 반대로 중국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 중국이 질적 성장 구조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향후 중국 경제구조 변화의 방향과 이에 따른 국내 수출산업의 영향을 살펴본다.

■ 중국 경제 및 교역 구조 변화

중국은 지난 2011년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기존 양적 고성장에서 질적 안정 성장을 목표로 성장 방식 전환을 추진하였다. 성장 방식의 전환으로 현재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중국 소비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산업구조는 2차 산업(제조업) 비중은 감소하고 3차 산업(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그 동안 중국 수출을 견인하던 가공무역이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교역구조를 보면 향후 산업구조 고도화 및 가공무역 축소에 따라 중간재 수입이 감소하고 대세계 수출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대한국 중간재 수입 비중의 경우 2000년 84.9%에서 2012년 72.4%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단순 가공 생산에 사용되는 반가공품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동시에 중국의 대세계 수출 구조는 기존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가공단계별로 보더라도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 및 자본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중국 경제 및 교역 구조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중국의 중간재 국산화로 인한 수입대체가 진행될 경우 중간재 비중 및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 IT, 전기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대중 수출 둔화가 우려된다. 또한 중국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한-중 간 수출경합도가 높아지고 있어, 중국의 수출구조 고도화로 인해 IT, 정밀기기, 일반기계, 수송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대세계 시장에서 한-중 간 수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점

중국 경제구조 변화가 국내 주력 수출 산업에 주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주력산업의 발전 단계가 중국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및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체 신흥시장 발굴 및 현지 진출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한중간 경제협력 강화 및 중국 현지 맞춤형 진출 전략 등을 통해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고기술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 요약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확대

-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 심화에 따른 중국 경제 변화의 영향 확대
 - 대중국 수출 비중 2000년 10.7%에서 2012년 24.5%로 크게 증가
 - 높은 대중의존도로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시 국내 수출산업 과급영향 확대

중국 경제 및 교역 구조 변화

경제 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적 고성장에서 질적 안정 성장으로 성장 방식 전환· 소비 확대: '소비/GDP' 비중 2011년 49%, 2020년 60% 증가 전망· 산업구조 고도화: '중화학공업 총산출/제조업 총산출' 비중 1997년 64.0%, 2007년 75.0% 증가· 가공무역 축소: '가공무역/총교역' 비중 2000년 49%, 2012년 35% 감소
교역 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구조 고도화 및 가공무역 축소에 따라 중간재 수입 감소 및 대 세계 수출경쟁력 상승 전망· 중국 대한국 중간재 수입 비중: 2000년 84.9%, 2012년 72.4% 감소· 중국 대세계 중화학제품 수출 비중: 2000년 29.5%, 2012년 36.1% 증가

중국 경제 및 교역 구조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 산업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대중 수출 영향<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재 비중 및 대중 수출 비중 높은 산업에 잠재적 위협· 향후 중국 중간재 국산화 진행시 석유화학, IT, 전기기계 산업이 대중국 수출 둔화 가능성 높음- 한-중 경합도 변화에 따른 대세계 수출 영향<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경쟁력 상승 및 한-중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에 잠재적 위협· 향후 중국 수출구조 고도화로 인한 경쟁 심화시 IT, 정밀기기, 일반기계, 수송기계 산업이 대세계 수출 위협- 구체적으로 세부 산업별로는 석유화학, 일반기계, IT, 정밀기기, 수송기계 등 국내 주력 중화학 산업에서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적인 위협이 큰 것으로 평가
----------	--

시 사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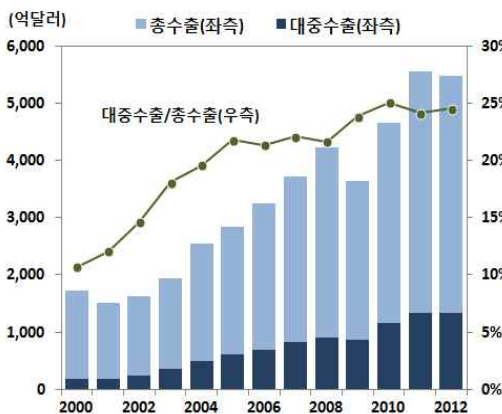
- 첫째, 산업발전단계가 앞설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및 로드맵 마련
- 둘째,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체 신흥시장 발굴 및 진출 경주
- 셋째,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및 현지 맞춤형 진출 전략으로 중국 내수시장 확보 노력
- 넷째, 중국 산업 경쟁력 상승에 대응하여 고부가·고기술 제품 개발에 주력

1. 개요

○ 대중 수출의존도 심화에 따른 중국 경제구조 변화의 영향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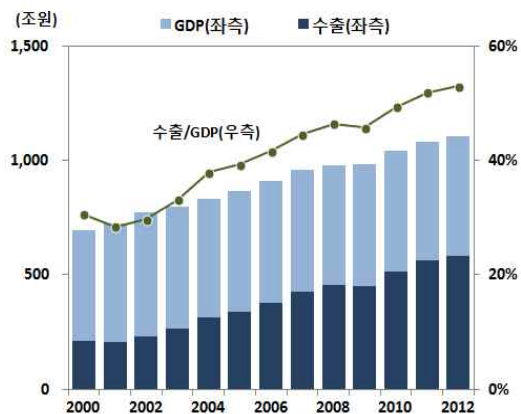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국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등 한국 경제의 성장은 중국의 고성장에 수혜를 입음
 - 한국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2000년 185억 달러에서 연평균 18.6%로 증가해 2012년에는 1,343억 달러 수준에 달함¹⁾
 - 이에 따라 국내 총수출 중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7%에서 2012년 24.5%로 크게 증가
- 국내 수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경제의 변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 국내 실질 GDP 대비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경기변동은 국내 경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기존 분석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국내 총수출증가율은 1.7%p 하락 압력을 받으며, 이는 곧 국내 경제성장률을 0.4%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²⁾

< 국내 총수출 및 대중 수출 추이 >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국내 수출/GDP 비중 추이 >



자료: 한국은행.

1) 동기간 국내 총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6%.
 2) '양날의 칼, 중국 경제(현대경제연구원, 2012.02.20.)'에서 재인용.

-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향후 중국의 성장 방식 전환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는 국내 경제에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최근 중국이 질적 성장 전환을 표방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가공무역 축소 및 내수 확대에 따른 중간재 수입 비중 축소 등이 예상
 - 또한 산업구조 발전 양상이 한국의 패턴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의 한-중 간 수출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중국 경제의 성장 방식 전환에 따른 중국의 산업구조 및 교역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 주요 산업별 영향을 분석해보고 시사점을 도출

2. 중국 경제 및 교역 구조 변화

1) 중국 경제구조 변화

○ 성장 방식 전환

- 중국은 지난 고도 성장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기존 양적 고성장 위주에서 질적 안정 성장을 목표로 성장 방식 전환을 추진
 - 중국은 지난 30년간 투자와 수출, 노동력을 앞세운 정책을 통한 현대화·산업화로 연평균 9.9%에 달하는 고도 성장기를 거침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득불평등, 소비와 투자간 불균형, 저부가 산업구조 등과 같은 구조적 모순이 증폭³⁾
 -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2011년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기존 양적 고성장 위주에서 질적 안정 성장을 목표로 성장 방식 전환을 추진⁴⁾

< 중국의 성장 정책 방식 변화 >

	성장목표	성장 정책 방식	산업 육성
개발 초기	공업화	중공업 지원을 위해 농업 집단화를 추구한 불균형 성장 정책	중공업 위주
고도 성장기	현대화, 산업화	투자, 수출, 저가의 노동집약적 요소를 활용한 개방화 정책	제조업 위주
현재 성장기	민생, 혁신, 환경	내수확대를 위한 질적 성장 정책으로 지속적인 성장 견지	차세대 신성장 동력 발굴

자료: ‘중국 성장정책 전환과 파급 영향(현대경제연구원, 2011.04.28.)’ 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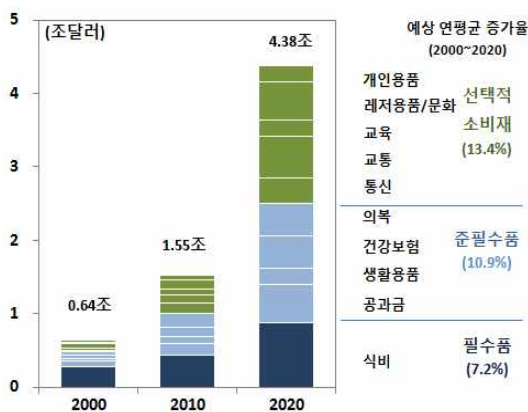
3) ‘중국 성장정책 전환과 파급 영향(현대경제연구원, 2011.04.28.)’ 재인용.

4) 중국은 실질적으로 지난 2006년 11차 5개년 계획에서 질적 성장으로 성장 방식을 전환한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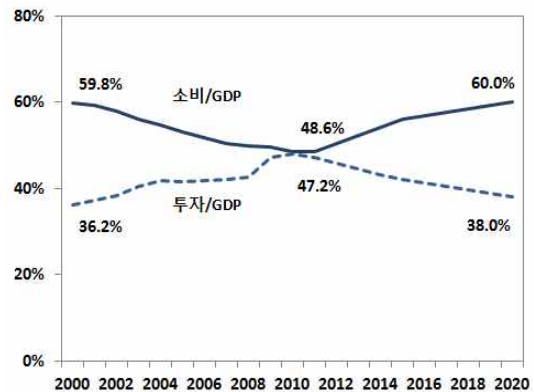
○ 소비 확대 및 투자 축소

-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1인당 소득 증가로 인해 소비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 수요 역시 다양화되고 있음
 - 중국 도시가구의 연간 소비지출 규모는 2000년 0.64조 달러에서 2010년 1.55조 달러로 연평균 약 9.2%로 증가
 - 또한 소비지출 중 식비와 같은 필수 소비재 비중은 2000년 43%에서 2010년 28%로 감소한 반면, 통신, 교육, 레저용품 등 선택적 소비재 지출 비중은 24%에서 33%로 증가
- 중국의 성장 방식 전환으로 인한 소비 비중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소비 지출 증가와 내수시장의 확대가 기대됨
 - World Bank에 따르면 중국 GDP 대비 소비 비중은 2011년 49%에서 2020년 60%까지 증가하는 반면 투자 비중은 2011년 47%에서 2020년 3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⁵⁾

< 중국 도시가구의 소비재별 지출액 전망 >



< 중국의 소비/GDP 및 투자/GDP 비중 전망⁶⁾ >



자료: 'Meet the Chinese consumer of 2020' (McKinsey Insights China, 201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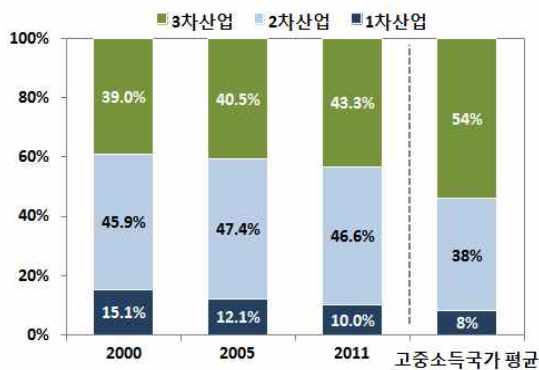
자료: UN 및 'China 2030(World Bank, 2012.02)' 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산출.
주: 소비는 정부부문 포함.

5) 2011년 GDP 대비 소비 및 투자 비중은 UN Statistic의 2005년 자국통화 가격 기준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산.
6) 중국 국무원 역시 지난 2011년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년 65.9%로 증가하고 투자 비중은 29.6%로 낮아질 것이라 전망한 바 있음('2030년 중국 경제발전과 성장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13 No.16, 2011.10.07.)'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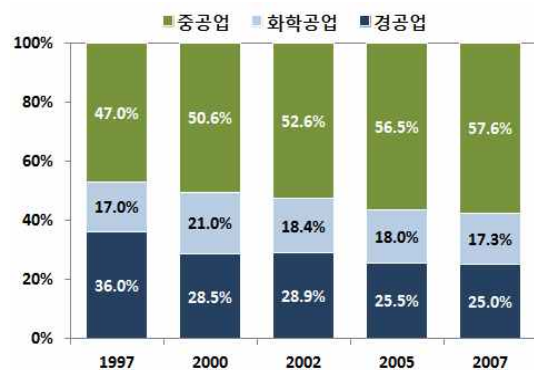
○ 산업구조 고도화

-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보면 아직까지 2차 산업(제조업) 중심이나 3차 산업(서비스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중국 GDP에서 2차 산업(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3차 산업(서비스업) 비중은 2000년 39.0%에서 2011년 43.3%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한편 동일한 소득 수준 국가에 비해 3차 산업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중국의 서비스업 부문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⁷⁾
- 특히 중국의 제조업 중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인 중화학 공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⁸⁾
 -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부문에서 자본·기술집약적인 중화학 공업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임
 - 중국 제조업 총산출에서 중화학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7년 64.0%에서 2007년 75.0%로 증가한 반면, 경공업 비중은 36.0%에서 25.0%로 감소

< 중국의 1·2·3차 산업별 비중 변화 >



< 중국의 제조업 총산출 대비 경공업, 중공업 및 화학공업 산출 비중 >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및 WDI(World Bank,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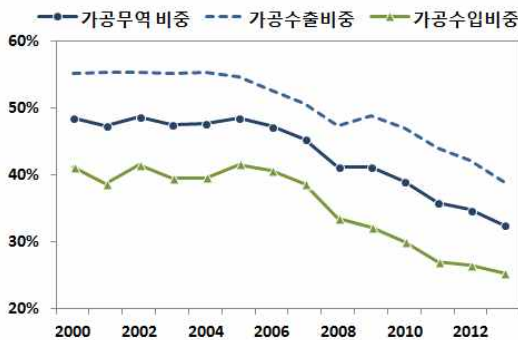
- 주: 1) 중국 산업별 구조 변화는 명목 GDP 대비 각 산업 비중
- 2) 중국 제조업 내부구조 변화는 중국 제조업 명목 총산출 중 각 산업의 총산출 비중
- 3) 화학공업은 중국 산업연관표 상 석유, 가스 및 석유정제업과 화학산업을 의미하며, 경공업은 식료품제조업, 섬유, 가죽제품제조업 및 기타 제조업, 중공업은 제조업 중 화학공업과 경공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

7) WDI(2012)에 따르면 중국의 2012년 1인당 GNI는 5,740달러로 소득수준별로는 고중소득국가(1인당 GNI 4,086~12,615달러)에 속함.
 8) 일반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에서 생산성 향상이 가장 빠른 제조업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따라서 제조업 내부구조의 변화가 산업구조 고도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에서 재인용).

○ 가공무역 축소 및 중간재 수입 비중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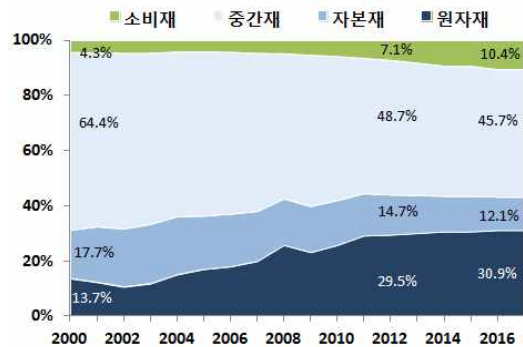
- 그 동안 중국 수출을 견인하던 가공무역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
 - 중국 총교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9%에서 2012년 35% 수준으로 감소
- 한편 가공단계별 재화의 수입 비중 추이를 보면 중간재 및 자본재 비중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소비재와 원자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⁹⁾
 - 2000년 64.4%에 달했던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12년 48.7%까지 낮아졌으며, 자본재 역시 17.7%에서 14.7%로 감소
 - 반면 소비재 수입 비중은 2000년 4.3%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7.1% 수준까지 증가
- 향후 중국의 소비재 수입증가율은 더욱 높아지는 반면,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증가율은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체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¹⁰⁾

< 중국 가공무역/총무역 비중 추이 >



자료: CEIC.
주: 2013년은 1~6월 누적 기준임.

<중국 가공단계별수입/총수입 비중¹¹⁾>



자료: 'China 2030(World Bank, 2012.02)',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이 여타 국가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BOK 이슈노트 No.2287-1306, 2012.07.24.)'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산.

9) 원자재의 경우 2000년 13.7%에서 2012년 29.5%까지 증가하였으나, 물량 증가 이외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10)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재화별 수입 수요 변화는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이 여타 국가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BOK 이슈노트 No.2287-1306, 2012.07.24.)'의 중국의 재화별 수입증가율 변동(p.19)을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산출.
 중간재의 경우 반가공품과 부품으로 구분되나 전망치 산출을 위해 중간재로 통합하여 계산하였음.
 11) 가공단계별 분류 기준은 【별첨】 참조.

< 참 고 >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가공단계별 수입증가율 변화 추정¹²⁾

- World Bank의 중국 경제 성장 및 구조 변화 전망치를 근거로 2012~2017년 중국의 소비 및 투자 전망치를 산출
 - 중국 GDP는 2012~2017년 사이 연평균 8.0%로 증가, 이에 따라 소비는 동기간 연평균 약 10.9%로 증가, 투자는 연평균 5.2%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2012년을 기준 시점으로 이전 10년간(2001~2011년)과 이후 5년간(2012~2017년) 연평균 소비 및 투자 증가율 변화폭에 따라 수입수요가 변화한다고 가정
 - 연평균 소비증가율은 2001~2011년 8.4%에서 2012~2017년 10.9%로 약 2.5%p 상승하며,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13.2%에서 5.2%로 약 8.0%p 하락
 - 소비증가율 상승은 중국의 소비재 수입 확대에 이어져 소비재 수입증가율을 4.9%p 상승시킴(소비의 수입유발계수 0.116 및 소비재 수입 비중 5.8% 적용)
 - 투자증가율 하락은 중국의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 감소를 유발해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증가율을 각각 5.4%p, 9.0%p 하락시킴(투자의 수입유발계수 0.181 및 원자재 수입비중 26.6%, 자본재 수입비중 16.1% 적용)¹³⁾
 - 한편 수출증가율 둔화(5.0%p)는 소비재 수입증가율을 8.0%p 상승, 자본재,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증가율을 각각 -7.3%p, -4.3%p, -2.7%p 하락시킴¹⁴⁾

<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가공단계별 재화 수입증감률 변화 추정 >

(%p)

	소비재(5.8)	자본재(16.1)	원자재(26.6)	중간재(51.4)	전체
소비증가율(2.5%p 상승)	4.9	-	-	-	0.3
투자증가율(8.0%p 하락)	-	-9.0	-5.4	-	-2.9
수출증가율(5.0%p 하락)	3.1	1.70	1.1	-2.70	-0.6
수입증가율 변화폭	8.0	-7.3	-4.3	-2.7	-3.2

자료: 'China 2030(World Bank, 2012.02)',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이 여타 국가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BOK 이슈노트 No.2287-1306, 2012.07.24.)'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산출.

주: 1) () 안은 2008~2012년 가공단계별 재화의 수입 비중 평균(%)

2) 수입증가율 변화폭은 2001~2011년 연평균 증가율 대비 2012~2017년 증가율 변화폭을 의미.

12)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재화별 수입 수요 변화는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이 여타 국가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BOK 이슈노트 No.2287-1306, 2012.07.24.)'의 중국의 재화별 수입증가율 변동(p.19) 추정 방식과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산출.

13) 소비재, 자본재, 원자재, 중간재 수입비중은 2008~2012년 평균치를 사용함.

14) 수출증가율의 경우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매년 1%p씩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며, 이에 따라 IMF(2011.06)의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재화별 수입증가율 변화를 추산한 한국은행의 가정을 차용하였음('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이 여타 국가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BOK 이슈노트 No.2287-1306, 2012.07.24.)'에서 재인용(p.10, p.19)).

2) 최근 10여년간 중국 교역구조 변화

○ 중국의 대한국 수입구조 변화

- 중국의 대한국 수입을 가공단계별 분류에 따라 나누어 볼 경우 중간재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 중국의 대한국 수입 중 중간재인 반가공품과 부품 수입 비중은 2000년 84.9%에서 2012년 72.4%로 약 13.0%p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자본재 수입 비중의 경우 2000년 9.9%에서 2012년 23.2%로 약 13.3%p 증가
 - 반면 소비재 수입 비중의 경우 5%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2000년 4.8%에서 2012년 3.9%로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약 0.9%p 감소

- 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에서 중간재 수입 비중 감소 및 부품 수입 비중 증가는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는 동시에 한-중 간 분업구조의 심화를 의미
 - 대한국 중간재 수입 비중 감소와 더불어 단순 가공 생산에 사용되는 반가공품 비중의 감소는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
 - 한편 동시에 대한국 부품 수입 비중 증가는 한-중 간 교역에 있어 단순 가공 생산을 넘어서 생산과정상 분업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반영

< 중국의 가공단계별 대한국 수입/총 대한국 수입 비중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

	2000		2005		2012		연평균 증가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차 상품	71	0.4	375	0.6	829	0.6	22.7	
중간재	반가공품	12,024	65.2	26,020	42.0	53,074	39.5	13.2
	부품	3,641	19.7	24,773	40.0	44,228	32.9	23.1
최종재	자본재	1,822	9.9	8,667	14.0	31,820	23.7	26.9
	소비재	894	4.8	2,073	3.3	4,360	3.2	14.1
합 계	18,452	100	61,908	100	134,311	100	18.0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산출.

주: 1)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12년 사이 각 가공단계별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

2) 가공단계 분류상 데이터 누락으로 인해 실제 수입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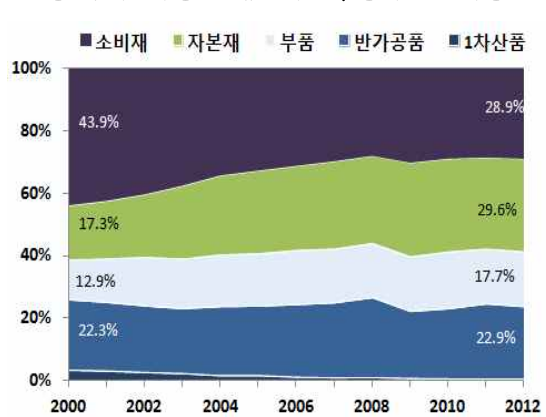
○ 중국의 주요 산업별 대세계 수출구조 변화

- 중국의 산업별 수출비중을 보면 경공업제품 수출은 감소하고 중화학제품 수출 비중은 증가하는 등 고부가 수출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⁵⁾
 - 2000년 총수출 대비 비중이 33.8%로 주력 수출 산업이었던 경공업 산업의 수출 비중은 2012년 19.7%로 감소
 - 반면 경공업과 더불어 2000년 21.3%를 차지하며 주력 수출 산업이던 IT 산업 수출 비중은 2012년 29.9%로 증가해 현재 중국 최대 수출 산업으로 부상
 - 더불어 석유화학, 금속·비금속, 기계 등 중화학산업(경공업, IT, 가전 제외) 수출 비중은 2000년 29.5%에서 2012년 36.1%로 약 6.6%p 증가함
 - 이는 중국의 수출구조가 경공업과 IT 중심에서 중화학 및 IT 산업 등 고부가 산업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
- 가공단계별 수출구조를 볼 경우에도 최종재 중 자본재 수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수출구조가 소비재 중심에서 자본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 총수출에서 소비재와 자본재를 합한 최종재 비중이 유지되고 있으나 최종재 중 자본재 수출 비중이 증가
 - 이는 '중간재 수입→가공·조립→최종재 수출' 구조가 유지되나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본재 중심으로 수출구조가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

< 중국의 주요 산업별 수출 비중 추이 >

	2000	2005	2012
경공업	33.8	23.5	19.7
석유화학	8.6	7.7	8.1
금속비금속	8.5	9.4	9.3
일반기계	4.6	5.7	8.2
가전	1.5	1.7	1.6
IT	21.3	33.4	29.9
전기기계	2.2	1.8	2.1
수송기계	2.6	2.9	4.5
정밀기기	3.0	3.2	3.9
기 타	13.9	10.7	12.7

< 중국의 가공단계별수출/총수출 비중 >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산출.

주: 중국 산업별 수출 비중은 중국 총수출에서 각 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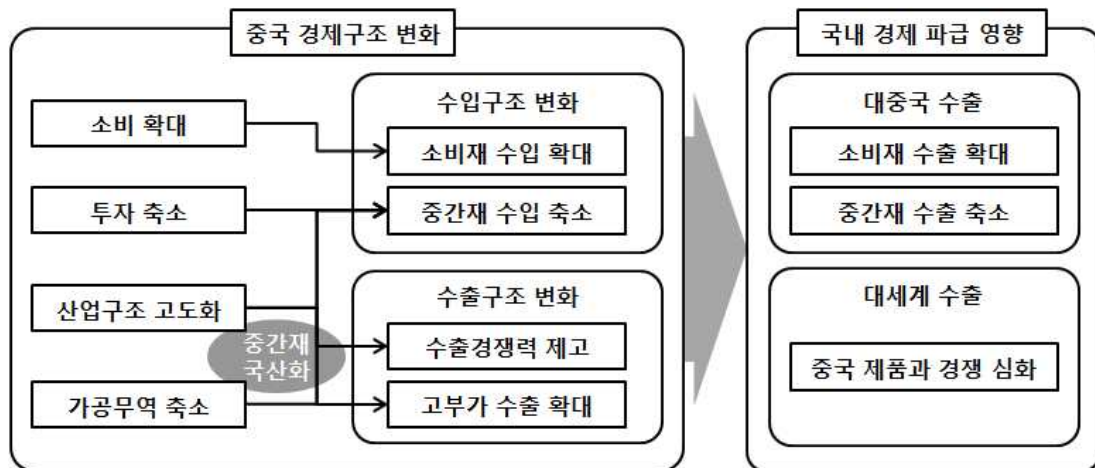
15) Li Cui(2007)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 생산 증가에 따라 수출입 구조의 연계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수출과 수입 구조 모두 고도화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3. 중국 경제 및 교역 구조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수출입 구조 변화를 통한 국내 경제의 영향 경로

- 중국 경제구조 변화는 중국 수출입 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대중국 수출 및 대세계 수출 측면에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침¹⁶⁾
- 중국의 소비 비중 증가 및 소비 품목 다양화는 중국의 소비재 수입 확대 요인이며 이는 국내 대중국 소비재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
- 투자 및 가공무역 축소,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중간재 수입 축소는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¹⁷⁾
- 한편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인 중화학 제품의 수출 확대 및 수출경쟁력 제고로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국내 제품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¹⁸⁾

< 중국 경제구조 변화가 국내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16) 중국 경제구조 변화는 대중 상품 수출뿐만 아니라 대중 상품 수입 및 대중 서비스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대중 상품 수출 및 대세계 상품 수출에 국한하였음. 또한 국내 대중국 소비재 수출 비중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해 중국의 소비재 수입 확대의 영향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17)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는 중국내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입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고려하지 않음.

18) Françoise Nicolas(2009)는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및 가공무역 축소에 따라 한중간 무역이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

○ 중국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대중국 수출 영향

- 중국의 대한국 수입 구조 변화를 보면 현재는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가시화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 산업에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
 - 아직까지 대중국 수출에 있어 중간재 비중이 높으며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한-중 간 분업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나,
 - 향후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중간재 국산화가 진행될 경우 이는 중간재 수출 비중(특히 반가공품)이 높으면서 동시에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에 있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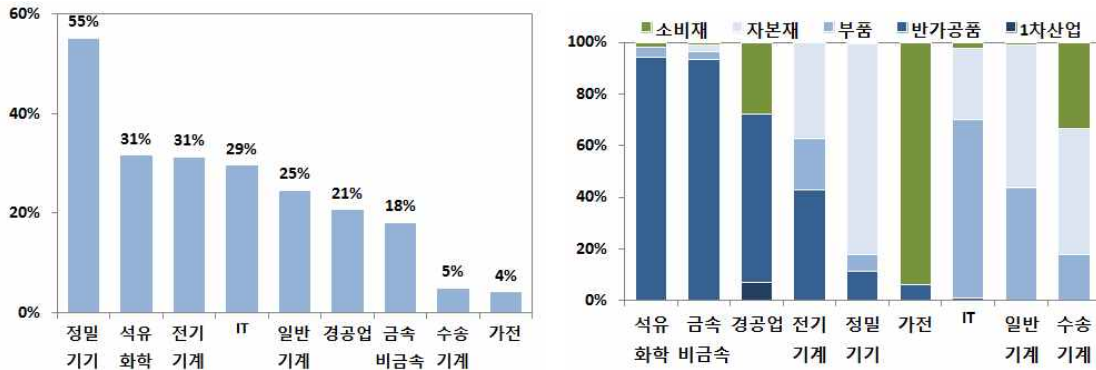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대중 수출 비중을 토대로 볼 경우 국내 산업 중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정밀기기, 석유화학, 전기기계, IT, 일반기계 등임
 - 2008~2012년 각 산업별 대중 수출 비중 평균을 보면 정밀기기(55%)가 가장 높고 석유화학 및 전기기계가 31%, IT 29%, 일반기계 25%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최근 5년간 각 산업별 총수출 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석유화학, 금속·비금속, IT, 경공업 등임
 - 2008~2012년 평균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석유화학(98%), 금속·비금속(96%), IT(70%), 경공업(65%), 전기기계(63%)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국내 산업의 반가공품 수출 비중을 보면 석유화학(94.2%), 금속·비금속(93.4%), 경공업(64.9%), 전기기계(42.8%) 순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대중국 수출의존도와 중간재 수출 비중을 종합해 볼 경우 석유화학, 금속·비금속, IT, 경공업 등은 중국 중간재 국산화 진행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한편 상대적으로 소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가전과 수송기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국 소비시장 확대에 의한 기회를 기대할 수 있으나, 중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이 심해 혜택을 장담할 수 없음¹⁹⁾

19) '중국의 구조변화 전망과 우리 산업의 중장기 대응전략(산업연구원, 2010)'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산업은 중국 시장 내에서 중국제품과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남(p.262).

< 국내 산업별 대중수출/대세계수출 비중 > < 국내 산업의 가공단계별수출/총산업수출 비중 >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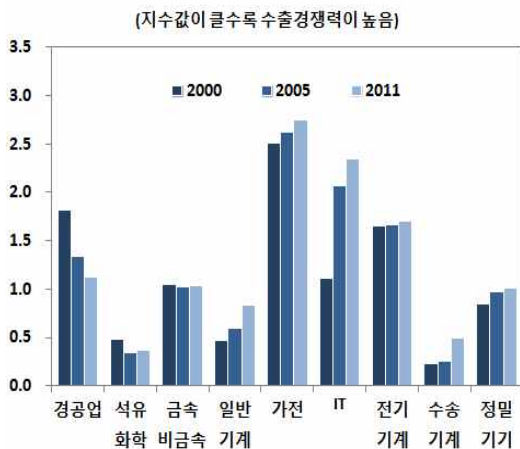
- 주: 1) 국내 산업별 대중 수출 비중은 2008~2012년 사이 각 산업별 총수출에서 각 산업의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을 의미
- 2) 국내 산업별 총수출 대비 가공단계별 수출 비중은 2008~2012년 비중의 평균치를 의미.

○ 한-중 경합도 변화에 따른 대세계 수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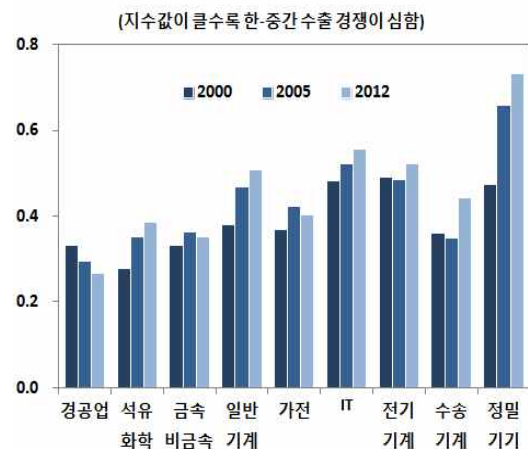
- 중국 수출구조 변화가 한국 수출구조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세계 수출시장에서 주요 산업들의 한-중 간 경쟁 심화로 이어짐
 - 중국의 산업 발전 과정이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고도화 되는 것은 과거 한국의 패턴과 유사해 향후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 심화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주요 산업별 비교우위 변화를 보면 현재 주력 수출 산업인 IT 산업을 위주로 대부분 중화학 산업의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기준 중국의 주요 산업 중 현시비교우위 지수가 1이상으로 수출비교우위가 존재하는 산업은 경공업(1.13), 가전(2.75), IT(2.34), 전기기계(1.70) 등
 - 비교우위 지수의 동태적 변화를 보면 IT 산업이 2000년 1.12에서 2011년 2.34로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일반기계(0.47→0.84), 수송기계(0.23→0.50), 가전(2.51→2.75), 정밀기기(0.84→1.01) 역시 경쟁력이 개선됨
 - 반면 경공업, 석유화학, 금속·비금속 산업의 경우 비교우위 지수가 하락해 비교열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시장에서의 한-중 간 수출경합도 추이를 보면 중국 산업의 경쟁력 개선으로 인해 주력 산업이 대부분 수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
 - 2012년 기준 한-중 간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은 산업은 정밀기기(0.731)이며, 그 뒤로 IT(0.555), 전기기계(0.521), 일반기계(0.508), 수송기계(0.442) 순서임
 - 반면 경공업의 경우 수출경합도가 2000년 0.332에서 2012년 0.266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가전과 금속·비금속 산업, 전기기계는 수출경합도 증가폭이 각각 0.034, 0.019, 0.029로 경쟁 강도가 크게 심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석유화학(0.277→0.385), 일반기계(0.381→0.508), IT(0.483→0.555), 수송기계(0.360→0.442), 정밀기기(0.475→0.731)는 수출경합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²⁰⁾

< 중국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 지수 추이 >



< 한-중 산업별 수출경합도 추이 >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산출.

- 주: 1)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는 특정국 수출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수로 값이 클수록 해당 상품의 비교우위가 있음을 의미.
 $(RCA = (X_{i,j}/TX_j)/(X_i/TX))$, 단 $X_{i,j}$ 는 j국의 i상품 수출, TX_j 는 j국 총수출, X_i 는 전세계 i 상품 수출, TX 는 전세계 총수출을 의미)
- 2) 중국 경제구조 변화가 대중 수출을 제외한 대세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중 양국의 총수출에서 양국간 수출을 제외하고 수출경합도를 산출함
- 3) 수출경합도는 양국간 수출 품목의 경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해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산업별 수출경합도 = $\Sigma MIN(X_a^i/X_{a,k}, X_b^i/X_{b,k})$, 단 $X_j^i/X_{j,k}$ 는 j국 k산업수출에서 i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20) 대부분 산업들의 수출경합도가 상승하고 있으나, 세부 산업별로 더 나누어 분석할 경우 한-중 간 제품 차별화 등으로 인해 경합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도 존재함. 예를 들어 금속비금속 산업에 포함되는 철강의 경우 한국은 고부가 제품인 압연제품인 반면 중국은 범용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중국 제품과의 수출 경쟁이 실제로는 낮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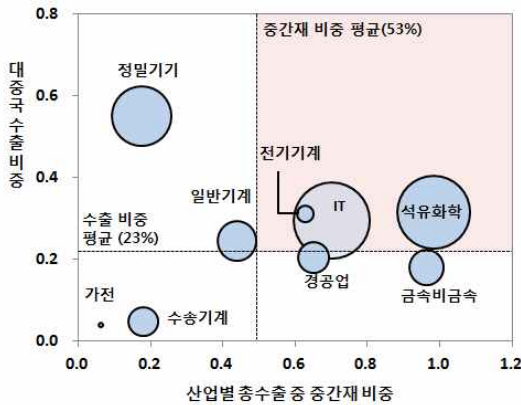
○ 국내 주요 산업별 수출 영향 평가

- 대중국 수출 측면에서 보면 향후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자국산 제품 수입대체가 진행될 경우 석유화학, IT, 전기기계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대중국 수출 둔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대중국 수출의 경우 산업별 중간재 수출 비중 평균인 53% 이상인 동시에 대중국 수출 비중 평균인 23% 이상인 석유화학, IT, 전기기계 산업이 상대적으로 대중국 수출 둔화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²¹⁾
 - 가전 및 수송기계 산업은 대중국 의존도가 낮고 산업 자체가 소비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히려 대중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금속·비금속, 일반기계 산업이나 경공업은 산업 특성으로 중간재 비중이 높지만 대중 수출 비중이 낮으며, 특히 금속·비금속 산업은 한-중 간 제품 차별화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정밀기기 산업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50%를 넘지만 수출의 80% 이상이 고부가·고기술인 자본재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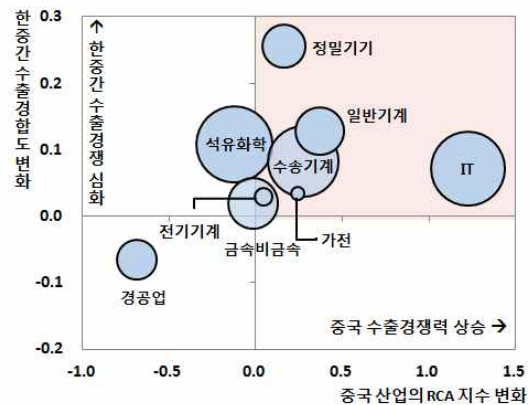
- 한편 대세계 수출 측면에서는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수출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IT, 정밀기기, 일반기계, 수송기계 산업이 향후 중국의 수출구조 고도화로 인해 대세계 수출 둔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
 - 대세계 수출은 중국 산업의 RCA지수가 2000년 대비 2011년 증가해 경쟁력이 상승한 동시에 동기간 한-중 간 수출경합도가 증가해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산업이 잠재적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
 -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인 IT와 일반기계, 정밀기기, 수송기계 산업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음
 - 석유화학, 금속·비금속 산업의 경우 한국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은 높지만 범용 제품 위주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가전과 전기기계 산업의 경우 국내 총수출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하면 국내 경제에 대한 잠재적 위협 요인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경공업의 경우 양국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등으로 생산기기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²²⁾

21) 단 전기기계의 경우 중국의존도 및 중간재 비중이 높지만 수출 규모가 작아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판단.

< 국내 산업별 대중국 수출 영향 >



< 국내 산업별 대세계 수출 영향 >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산출.

주: 1) 원 크기는 국내 산업별 대중국 수출금액과 대세계 수출금액을 의미

2) 중국의 RCA 지수 변화 및 한중간 수출경합도 변화는 각각 2000년 대비 2011년 지수의 변화를 의미

4. 시사점

○ 향후 중국 경제가 질적 성장방식을 추구함에 따라 그 영향으로 중국시장에서 우리 중간재 수출산업이 타격을 받고 세계시장에서 중화학제품 수출산업의 한-중 간 경쟁 격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 앞으로 중국 경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안정 성장 구조로 전환될 것이며, 이에 따라 ① 소비시장의 급성장, ② 중화학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고도화, ③ 가공무역 축소로 인한 중간재 수입 비중 하락 등의 수요, 산업, 교역 구조의 변화가 전망

- 이러한 중국 경제 및 교역 구조 변화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중간재 중심의 대중국 수출구조가 위협을 받고, 우리 중화학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아직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한-중 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중국 경제 및 교역 구조 변화가 우리 주력 수출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

22) 산업을 더 세분화 할 경우 한국과 중국의 수출제품이 범용제품과 고부가제품으로 시장이 분리되어 영향이 작을 수 있으나 본 보고서 상 산업 분류에서는 반영하지 않음.

첫째, 우리 주력산업의 발전 단계가 중국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및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 중국의 중화학공업 경쟁력 급상승에 따라 우리산업과의 한-중 간 경쟁이 심화될 것에 대응하여 중장기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및 로드맵 마련이 필요
- 특히, 핵심 신소재·부품, 나노융합 및 IT융합 산업 등의 신성장 제조업의 육성·발굴을 통해 중국이 추격하기 어려운 새로운 주력 산업을 확보해야 함

둘째, 국내 경제의 높은 중국 의존도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신흥시장 발굴 및 현지 진출에 주력해야 한다.

- 중국 이외의 신흥공업국에 대한 수출활로 개척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새로운 신흥국으로 부상중인 ASEAN 및 중동 국가들에 대한 진출 노력이 요구됨
- 한편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는 FTA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정보 제공 및 기업들 간 공조 체제가 활성화 될 필요

셋째, 한-중 간 경제협력 강화 및 중국 현지 맞춤형 진출 전략 등을 통해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 한-중 간 우호적 관계 증진 및 한중 FTA 등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이용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 노력이 필요
- 중국 소비 시장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현지 맞춤형 마케팅 및 제품 개발을 통해 중국 소비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국내 서비스 업계의 중국 진출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함

넷째, 중국의 질적 성장에 따른 산업 경쟁력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고부가·고기술 제품 개발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

- 중국 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의 질적 성장으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국내 제품의 경쟁력 차이가 크게 좁혀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범용 제품 보다는 고부가·고기술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중국 제품과의 기술적 차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일간 교역 구조와 같이 첨단 제품에 대한 대중국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술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
 - 또한 주요 제조업들의 경우 단순 제품 판매 위주가 아닌 서비스 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 시장 내 경쟁력 유지를 위한 차별화 전략이 요구 **HRI**

조규림 선임연구원 (jogyurim@hri.co.kr, 02-2072-6240)

【참고문헌】

- 강두용, 2006. 2. “중국의 부상이 한국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 배상인 강지연, 2012. 7. 24.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이 여타 국가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No. 2012-4.」
- 이상진 외, 2012. 9. 19. “중국경제 성장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대중수출의 영향”,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No. 2012-9.」
- 이시욱, 2008. 12. “대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추이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8-15.」
- 조 철 외, 2010. 12. “중국의 구조변화 전망과 우리 산업의 중장기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584.」
- 주 원 외, 2012. 02. 20. “양날의 칼(double-edged sword), 중국 경제”,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12-07.」
- 한재진, 2011. 04. 28. “중국 성장정책 전환과 파급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11-0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10. 7. “2030년 중국 경제발전과 성장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13 No.1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2.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정책연구 05-18.」
- Françoise Nicolas, 2009. 12. “The Changing Econom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Korea: Patterns, Trends and Policy Implications”, The Journal of The Korean Economy, Vol. 10, No. 3.
- Hitoshi Sasaki and Satoko Ueyama, 2009. 06. “China’s Industrial Structure and its Changes in Recent Years”, Bank of Japan Working Paper Series No. 09-E-2.
- Li Cui and Murtaza Syed, 2007. 09. “The Shifting Structure of China’s Trade and Production”, IFM Working Paper.
- McKinsey&Company, 2012. 03. “Meet the Chinese consumer of 2020”, 「McKinsey Consumer & Shopper Insights.」
- World Bank, 2012. 2. “China 2030”.

【별첨】

< 가공단계별 분류 기준 >

		제품명
원자재(1차산품)		산업용 식음료품(111) 산업용 원자재(21) 연료 및 윤활유(31) 등
중간재	반가공품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121)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22) 자동차용 휘발유(321) 가공된 연료 및 윤활유(322) 등
	부품 및 부분품	운송장비 등 자본재 관련 부품 및 부분품(42, 53)
최종재	자본재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41) 산업용 운송장비(521)
	소비재	가정용 식음료 제품 및 반제품(112, 122) 승객용 자동차(51)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522) (반)내구성 및 비내구성 소비재(61, 62, 63)
기타		이상에서 분류하지 않은 제품군

자료 : '대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추이와 거시경제적 시사점(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2008-15, 2008.12)'에서 재인용.

- 주: 1) 가공단계별 구분은 최종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제품을 구분하는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분류방식을 따름
2) () 안은 BEC 코드 분류 번호임.

< 산업 분류 기준 >

산업 구분		무역통계 분류 (SITC rev.3)	산업 구분		무역통계 분류 (SITC rev.3)
경공업	1차산품 및 식음료	0,1,2,4	일반기계	일반기계	71~74
	섬유	65	가전	가정용 전기기기	886
	의류	84	IT	컴퓨터 및 사무기기	75
	신발, 가죽제품	61,85		반도체 및 전자부품	772,776,778
	나무 및 종이제품	63,64		영상응향통신기기	76
	인쇄출판	892	전기기계	전기기계	771,773
석유 화학	석유, 석탄	3	수송기계	자동차	78(785제외)
	화학	5(58제외)		기타 수송기계	79
	플라스틱, 고무제품	58,62	정밀기기	정밀기기	774,87,88
금속 비금속	비금속광물제품	66	기타	기타	785,81~84,89(892제외), 9
	철강 및 금속제품	67~69			

자료 : '중국의 부상이 한국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산업연구원, 2006.02)'에서 재인용.

- 주: 본문상 산업의 가공단계별 수출은 BEC 기준 가공단계별 분류와 SITC 기준 산업분류를 바탕으로 BEC-HS-SITC 코드연계표를 이용하여 재분류 하였음.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2/4
미국	1.8	2.2	2.0	1.3	3.1	0.4	1.7	1.8	-
유로 지역	1.4	-0.6	-0.1	-0.2	-0.1	-0.6	-0.6	-0.3	-
일본	-0.6	1.9	4.8	-0.6	-3.6	1.2	2.0	4.1	-
중국	9.3	7.8	8.1	7.6	7.4	7.9	7.8	7.7	7.5

주 1) 2013년 연간 전망치는 IMF 2013년 7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7월 19일	7월 25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2.50	2.57	0.07%p
	엔/달러	77.66	79.37	85.86	100.59	100.30	-0.29¥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110	1.3195	0.0085\$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5,544	15,556	12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4,590	14,563	-27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85	2.95	0.10%p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121.7	1,116.1	-5.6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1,871.4	1,909.6	38.2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7월 19일	7월 25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108.18	105.55	-2.63\$
	Dubai	104.89	92.89	107.99	105.39	104.51	-0.88\$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90.92	286.90	-4.02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9	3.5	3.7	2.6	1.5	2.0	2.6
	민간소비 (%)	3.1	1.7	2.4	1.2	2.2	1.7	2.1
	건설투자 (%)	-7.0	-2.6	-4.7	-1.9	-2.4	-2.2	2.5
	설비투자 (%)	9.0	-1.3	3.6	2.3	-6.1	-1.9	1.0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137	294	431	39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109	174	283	270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2,750	2,729	5,479	5,589
		(증가율, %)	23.6	14.9	19.0	0.5	-3.1	-1.3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2,641	2,555	5,196	5,319
		(증가율, %)	26.7	20.2	23.3	2.3	-4.0	-0.9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7	1.6	2.2	1.6
실업률 (평균, %)		3.8	3.0	3.4	3.5	2.9	3.2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42	1,112	1,127	1,105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